

제주청년센터 욕설 홍보 영상 ‘뭇매’

동아리 모집 목적 SNS에 올렸지만 6일 만에 삭제 성차별 내용·비속어 담겨 논란 커져... 센터는 사과도 출자·위탁기관이지만 성별영향평가 받지 않아

제주청년센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홍보 영상이 논란에 휩싸였다. 성차별적인 내용과 비속어가 영상에 담기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제주청년센터에 따르면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청년 지원 플랫폼인 센터는 제주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동아리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지난 18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올렸지만, 6일 만인 23일 이 영상을 내려야 했다.

온라인상에서 영상 속 내용에 대한 비판 의견이 잇따라서다. 영상에는 한 여성 직원이 등장하고 가

요 '담배가게 아가씨'를 개사한 노래가 흐르는데, 여기에 "제주청년센터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온 제주 청년들이 너도나도 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집때기" 등의 표현이 담겼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퇴짜를 맞는 장면에서 여성을 향해 욕설을 하는 입 모양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자만 청년에 해당?" "여성 직원은 추근덕 대상이냐"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발상"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청년센터는

지난 23일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센터는 이후 올린 게시물에서 "원곡 표현을 살리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영상 속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센터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센터는 "해당 영상 기획·승인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 강화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된 센터의 이번 영상은 제주도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실국·행정시 부서에 대해 제주

도 관련 각종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제주청년센터까지는 이 절차가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제주청년센터는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년 지원 플랫폼이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의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콘텐츠 제작 과정과 승인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센터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하고 있는데 좀 더 진행하고, 센터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중동사태로 종량제봉투도 품귀 사태 현재 제주도 3개월·서귀포시 9개월 물량 확보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이 나타나 제주도가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량제봉투 재고량과 제작 업체에서 보유한 원료 물량을 점검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3개월치, 서귀포시의 경우 9개월치의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확

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제작업체의 원료 수급 상황도 수시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또 종량제 봉투 원료 수급에 관한 국내 동향을 계속 파악해 원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초등생 유괴 의심 사례... 학교 현장 '긴장'

아파트 단지 입구서 "길 알려달라" 유괴 시도 학교 측 바로 대응... "인근 학교에 상황 전파"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제주시 지역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쯤이다. 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던 초등학생 A(11) 양에게 접근한 한 여성은 해당 학교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A 양이 학교의 위치를 알려주자 "잘 모르겠다. 직접 안내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이 여성은 A 양의 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 신체 접촉까지 시도했다. 이후 A 양이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사건 하루 뒤인 지난 20일 밤, 학급 소통 앱의 메신저로 담임 교사에게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례'라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해당 학교는 지난 23일 인근 학교 6곳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가정통신문으로 '유괴·납치 예방을 위한 긴급 안내'를 전달하기도 했다.

긴급 안내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려달라"며 "등하교 시간 자녀와의 연락 체계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

해당 학교장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제(23일) 상황을 파악하고 (제주도)교육청에 관련 보고를 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대처 방법을 논의한 뒤에 아이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하고, 인근 학교에도 알렸다"고 했다.

3월 신학기에 유괴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내 학부모들 사이에 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안전 교육을 강화해 달라며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제주 외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에선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돈을 줄 테니 놀아달라며 유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정서희복과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이후에 학교 인근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며 "도내 각급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박소정기자



원단을 따라... 원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원단 걷기 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AI시대 제주 게임산업 발전 토론회

오는 31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게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31일 오후 3시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BeIN;) 공연장에서 열린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게임산업 육성 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은 김정태 교수가 맡

는다. 김 교수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게임산업 생태계 변화와 기술 중심에서 창의적 세계관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짚고, 제주 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역 기반 게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문수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영훈 지사가 패널로 참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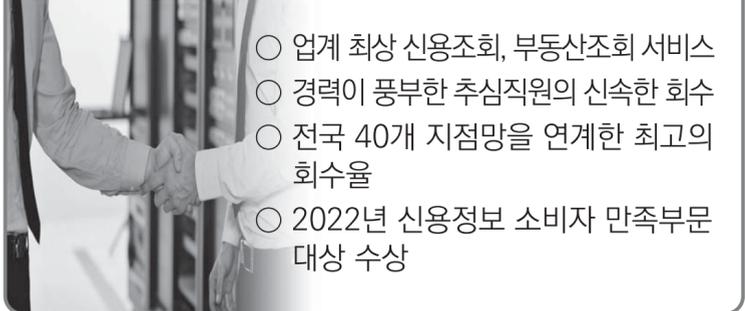
는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된다.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게임산업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맞물려 창의성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핵심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게임산업 육성의 실마리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